『세상 돌아가는 법』에 나타난 위선적인 사회상과 결혼

오 수 진

차 례

Ⅰ. 서론
Ⅱ. 위선적인 사회상의 극화
Ⅲ. 다양한 결혼의 극화
Ⅳ. 결론

Ⅰ. 서론

왕정복고 희극(Restoration Comedy)은 1660년 프랑스 망명 생활을 마친 찰스 2세(Charles Ⅱ)가 영국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왕정복고기 시대에 쓰인 희극을 일컫는다. 왕정복고 희극은 당대의 세련되고 복잡한 풍속과 부패하고 화려한 귀족들의 삶의 모습을 등장인물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무대에 올려 진 극들은 그들의 취향에 맞는 저속하고 부도덕하며, 향락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온건하고 건전한 인간의 모습보다는 타락하고 방탕하며 비속한 풍속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왕정복고 희극은 풍속희극(comedy of manners)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희극 작가들은 당대의 풍속과 사상을 비판하기 보다는 작품 속에 상류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 보나미 도브레(Bonamy Dobrée)는 왕정복고 희극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직관을 주기 보다는 당대에 대해 뛰어난 묘사를 제공하며 왕정복고 희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171). 존 파머(John Palmer) 역시 무대는 세계를 조망하기 위한 거울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모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4). 도브레와 파머는 왕정복고 희극이 가지는 도덕성 문제보다는 당대의 실생활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에서 희극 작품의 의의를 찾고 있다. 따라서 왕정복고 희극은 자연적으로 도덕보다는 풍속에 흥미를 갖고 인위적이고 타락한 상류계층이 강조하는 풍속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그 어리석음과 불구성에 대해 풍자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왕정복고 희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위트는 작품의 주제를 잘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트는 '어떠한 상황에서 재치 있게 말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지만, 왕정복고 희극에서는 사상 면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위트는 상상력(fancy)과 판단력(judgement)을 내포하고 있는데 판단력이 없는 상상력만으로는 위트를 구성할 수 없다. 상상력만으로는 조야하고 비합리적이고 무절제하고 극단적이며 요점이 없고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극적인 위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상력은 반드시 판단력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진정한 위트를 형성할 수 있다(Fujimura 18-9). 이처럼 위트는 자연스럽게 표현된 생각과 동시에 창조적 활동을 할 때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극 중에서 재담꾼들은 화려하게 위트를 사용한다. 관객은 등장인물들의 부도덕함과 적나라한 사회상의 묘사에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세련된 위트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익살에 가득한 장면을 보면서 웃음을 자아낸다. 그러나 왕정복고 희극 작가들은 위트의 역할을 관객의 즐거움만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향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내뱉는 역할까지 하게 만든다.

윌리엄 콩그리브(William Congreve)의 『세상 돌아가는 법』(*The Way of the World*)은 풍속과 위트의 극화에 잘 부합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법』은 돈,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남녀관계를 주제로 다루며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음모, 술책을 만들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이야기이다. 등장인물들은 특유의 위트와 세련된 예절, 술책 등으로 당시 귀족, 상류계층의 실상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미라벨(Mirabell)과 밀라망(Millamant)이 엮어내는 번뜩이고 세련된 위트와 그들의 주변 인물들이 펼치는 소극적인 요소들이 극의 희극적 효과를 고양시킨다. 등장인물들은 외관으로는 풍속과 예절을 중시하는 체하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술책과 계략이 그들의 행동과 말을 지배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돈을 얻기 위해

그들의 행동이 비도덕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점을 지닌 인간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회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며, 필요에 따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술책을 부리면서 살아간다.

헨리 페리(Henry Ten Eyck Perry)가 왕정복고 희극이 단순히 왕정복고 시대라는 한정된 기간에 유행한 극 형식이라기보다는 현대 사상극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듯이(132) 돈과 성에 얽힌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현실 세계를 초월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기에,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을 논하는 데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극에서 등장인물들의 주 관심사인 재산, 명예, 성, 그리고 그들이 위선을 떠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특히 돈과 성은 자연스럽게 젊은 연인들의 결혼 문제와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왕정복고 희극의 걸작이라고 여겨지는 콩그리브의 『세상 돌아가는 법』에서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술책을 통해 당대의 위선적인 사회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극의 장르의 특성상 작품 속에는 다양한 결혼이 등장하고 결말의 움직임은 이상적인 연인의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진다. 위선적인 사회상은 등장인물들의 결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극의 가장 핵심 주제인 결혼의 모습과 콩그리브의 결혼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위선적인 사회상의 극화

왕정복고 시대에 상류계층은 화려한 옷차림, 멋진 외모, 세련된 위트, 적절한 예절과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나 양심과 같은 미덕보다 중요시 여겼다. 『세상 돌아가는 법』의 첫 장면은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미라벨과 페이놀(Fainall)은 초콜릿 하우스(chocolate-house)에서 카드 게임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페이놀은 게임에 지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미라벨에게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인에게 구애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쁜 운수를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과는 카드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1.1.9-11)며 투덜거린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위트우드(Anthony Witwoud), 페튤런트(Petulant), 밀라망, 레이디 위시포트(Lady Wishfort), 마우드 부인(Mrs. Marwood) 등 여러 인물들에 대해 미리 엿볼 수 있다. 또한 레이디 위시포트를 중심으로 열리는 "한 주간의 망가진 명예들"(1.1.59)을 거론하는 "비밀결사의 밤"(1.1.55-6)을 통해 당시 사회가 추문을 피하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만을 중시하는 사회임이 서서히 드러난다.

미라벨은 밀라망과 결혼하기 위해 레이디 위시포트에게 거짓 구애가 실패한 것이 마우드 부인이 중간에 방해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1.1.75-112). 미라벨이 밀라망에 대한 사랑을 숨기려고 한 거짓 구애가 마우드 부인 때문에 들통이 나고, 분노한 레이디 위시포트가 미라벨을 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 또한 서로가 마우드 부인과 관계된 일이 있음을 간파해내고 있다. 미라벨은 자신의 결백을 암시하고 마우드가 페이놀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당신의 친구 혹은 당신의 아내 친구, 마우드 부인"(your friend, or your wife's friend, Mrs. Marwood.)(1.1.78)이라고 강조한다(Love 95). 페이놀 역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라벨이 그녀에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마우드 부인이 그의 일을 훼방놓았겠느냐며 미라벨을 질책한다. 둘의 친구관계가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라벨과 페이놀은 모두 위트를 지닌 신사이다. 둘은 각자 레이디 위시포트의 재산 내지 그녀가 관리하는 밀라망의 돈을 수중에 넣으려고 책략을 쓰기 때문에 외관상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각 상충하는 권력질서를 상징한다. 페이놀이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를 대표한다면 미라벨은 신뢰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즉 페이놀은 귀족 계급이 신봉하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인물인 반면, 미라벨은 신뢰를 토대로 한 계약관계에 기초를 둔 새 질서를 구현한다. 리처드 브레이버만(Richard Braverman)은 왕정복고 후기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연결시켜 이 극의 중요

한 분투는 미라벨과 페이놀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한다(134). 새로운 세상 돌아가는 법을 배워 온 개선되고 성욕에 있어서도 건설적인 난봉꾼 미라벨이 제멋대로인 난봉꾼인 페이놀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쥔다고 볼 수 있다. 두 남성 인물을 통한 지배 질서의 변화는 왕정복고 희극의 여성인물들에게 어떤 부가적인 힘을 부여해 주는 한편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도 남성들에게 계속해서 힘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Braverman 148). 극의 결말이 미라벨에 의해 조종되며 밀라망과 결혼하는 것은 미라벨의 힘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외양만을 중요시하는 상류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 모습을 감추고 세련된 대화나 사교술에 의존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귀부인들이 가면을 쓰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공작부인들은 꽃장수로 변장하여 아침 일찍 연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극장에 가서 연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연인을 찾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Dobrée 18). 실체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간의 진실한 관계를 이룰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온갖 술책을 부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모두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만, 그 가면 속에는 위선, 계략, 질투, 증오 등 그들의 추악한 실상이 들어 있다. 콩그리브는 등장인물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위선으로 가득 찬 실상과 명예와 돈에 대한 집착 등을 폭로한다. 외면 중심의 사회이기에 남의 가면 속을 들춰내려는 노력은 미라벨의 옛 애인인 페이놀 부인(Mrs. Fainall)과 마우드 부인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이 극에서 여자들로서는 처음으로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는 이들은 여자들의 서로에 대한 성실성이라는 문제와 둘 사이의 각별한 우정을 직접 논의한다(2.1.1-55).

처음에 페이놀 부인과 마우드 부인은 여자들만이 다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화중에 특정인 미라벨의 이름이 거론되자 둘의 우정은 와해된다. 1막에서 보았던 미라벨과 페이놀의 우정관계가 깨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둘 모두 미라벨을 원하고 이러한 욕구가 그들의 우정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곧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페이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페이놀 부인과 마우드 부인에게

미라벨을 사랑하면서도 똑같이 싫어하는 척을 한다며 그들의 위선적인 속마음을 들춰낸다(2.1.150-3). 이러한 페이놀의 비난에 마우드 부인은 남자들의 공허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맹세보다는 오래가는 게 여자들의 우정이라며(2.1.185-7) 당당히 맞선다. 다시금 그녀는 겉보기에 충분히 위선적인 여자들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들은 외면 중심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시하는 이상을 떠받드는 체 해야 한다.

위트, 예절, 쾌락 등에 가치를 두는 페이놀은 위선의 결정체이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 아내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의 관계에 있는 마우드 부인의 재산까지 다 써버린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상호 신뢰가 없는 외면만의 사랑일 뿐이다. 마우드 부인은 자신과의 관계와 이제까지 그가 벌인 행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 마우드 부인: 내가 한 모든 잘못에,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내 명예와 재산에 끼친 손해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구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난 당신을 신뢰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끝장난 당신을요.
>
> 페이놀: 당신의 명예는 내가 지켜주지 않았소,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방탕한 사랑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눈 쾌락에 사용되었소. 하지만 당신이 나쁜 짓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돈을 갚았을 것이오. 사실이오. 당신이 미라벨과 밀라망의 비밀 결혼을 모른 척하기만 했어도 장모님은 모든 화해의 가능성을 뛰어넘어 격분했었을 텐데. 그러면 밀라망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을 테고 그것은 곧 내 아내에게 상속되었을 것이오. 그러나 부유한 미망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낚아 채 사랑과 당신을 위해 써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겠소?

> Mrs. Marwood: By well my wrongs I'll do't—I'll publish to the world the injuries you have done me, both in my fame and fortune. With both I trusted you, you bankrupt in honor, as indigent of wealth!

> Fainall: Your fame I have preserved. Your fortune has been bestowed as the prodigality of your love would have it, in pleasure which we both have shared. Yet, had not you been false, I had e'er this repaired it. 'Tis true. Had you permitted Mirabell with Millamant to have stolen their marriage, my lady had been incensed beyond all means of reconcilement: Millamant had forfeited the moiety of her fortune, which then would have decended to my wife; and wherefore did I marry, but to make lawful prize of a rich widow's wealth, and squander it on love and you? (2.1.218-229)

재산이 없는 페이놀의 곤궁함과 명예의 파산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는 마우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명예와 재산 때문에 시작된 그들의 이해관계는 명예도 망쳐버리고 돈도 탕진해 버렸기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페이놀은 재산 때문에 결혼했고, 아내의 과거를 이용해 레이디 위시포트의 돈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고, 페이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가 추구하는 당대 상류사회의 가치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당대 사회가 추문을 두려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와 재산이 중시되는 사회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미라벨과 페이놀 부인은 예전에는 연인관계였지만, 지금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미라벨의 주선으로 페이놀과 결혼했지만, 결혼에 대해 후회하고 심지어 남편을 증오하기까지 한다. “당신은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도록 한 거죠?”(Why did you make me marry this man?)(2.1.294)라는 페이놀 부인의 질문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미라벨의 답은 재치가 넘친다.

> 미라벨: 우리가 매일같이 불쾌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소? 저 대단한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친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면 남편 말고 어디서 아버지의 이름을 신뢰로 고정 시킬 수 있었겠소?....

> Mirabell: Why do we daily commit disagreeable and dangerous actions? To save that idol, reputation. If the familiarities of our loves had produced that consequence, of which you are apprehensive, where could you have fixed a father's name with credit, but on a husband?.... (2.1.295-299)

페이놀이 돈 때문에 결혼했듯이, 페이놀 부인 역시 미라벨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는 사생아로 인해 명예를 손상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페이놀과 결혼을 한 것이다. 미라벨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밀라망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연인인 페이놀 부인을 결혼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당대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술책의 목적은 항상 돈과 관련이 있다. 최고의 술책가인 미라벨은 몇 차례의 술책을 벌인다. 그는 밀라망과의 결혼 동의를 구하기 위해 레이디 위시포트에게 거짓 구애한 첫 번째 술책이 들통이 나자 새로운 계획에 돌입한다. 그는 하인 웨이트웰(Waitwell)을 자신의 가짜 삼촌인 롤랜드경(Sir. Rolland)으로 분장시키고 레이디 위시포트에게 구애하도록 한 다음 결혼 계약을 체결케 한다. 그리고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 레이디 위시포트에게 밀라망과의 결혼 동의를 얻어낼 것임을 페이놀 부인에게 설명해 주고 도움을 요청한다(2.1.312-360). 미라벨은 철저하게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술책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해 나간다. 그의 최종 목표는 페이놀처럼 단순히 밀라망이 가진 재산이 아닌 그녀와의 사랑이기 때문에 미라벨을 부도덕하다고 책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술책을 부리는 미라벨의 능력은 정교한 기술이 아닌 그를 돕도록 다른 인물들을 설득하는데서 발견된다(Love 91).

레이디 위시포트는 증오하는 미라벨에게 복수의 수단으로써 그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한다. 그녀는 롤랜드경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성이면 사죽을 못 쓰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라벨에 대한 복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레이디 위시포트: 누더기라구? 퇴물이 된 누더기라고 했겠다. 내가 그 악당에게 누더기를 입히겠어. 그를 겉만 번드르르한 누더

기로 만들겠어. 부랑아! 그가 롱레인 펜트하우스나 교수형 당하는 도둑처럼 넝마나 걸치고 있는 꼴을 보았으면 좋겠어. 입으로 남을 헐뜯는 인간. 장담컨대 백만 파운드 복권만큼 아니면 생일날 궁정 전체를 말아먹을 만큼의 빚을 지고 있을 방탕아란 걸. 그래. 내 조카와 그 애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보시지. 아무렴.

Lady Wishfort: 'Frippery? superannuated frippery!' I'll frippery the villain; I'll reduce him to frippery and rags. A tatterdemalion!—I hope to see him hung with tatters, like a Long Lane pent-house, or a gibbet-thief. A slander-mouthed railer: I warrant the spendthrift prodigal's in debt as much as the million lottery, or the whole court upon a birthday. I'll spoil his credit with his tailor. Yes, he shall have my niece with her fortune, he shall. (3.1.136-142)

당시에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이디 위시포트는 미라벨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를 가난뱅이로 만들려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써가면서 분투한다.

미라벨의 술책에 가담한 하인 웨이트웰(Waitwell)과 레이디 위시포트의 하녀 포이블(Foible) 역시 돈을 목적으로 가면을 쓰고 실체를 숨기면서까지 미라벨의 술책이 성공하는데 기여를 한다. 웨이트웰과 포이블은 하류계급이지만 그들에게도 돈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 그들은 기꺼이 미라벨의 '도구'(expedient)(5.1.541)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돈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탐욕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미라벨과 상관관계에 있는 페이놀은 아내의 돈과 연인의 돈까지 다 써버리자 밀라망의 돈까지 손에 넣으려고 술책을 부린다. 페이놀의 결혼은 안한 것과 마찬가지며 남편으로서의 명예도 사랑도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다. 그는 아내의 행동에 질투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아내의 돈만 가져오면 그만인 것이다. 결국 그는 마우드 부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술책을 펼쳐 나간다. 마우드 부인은 페이놀 부인의 평판을 깨뜨릴 기회를 잡으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3.1.710-718). 페이놀은 자신의 술책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아내의 평판을 손상시키겠다는 위협을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미라벨이 페이놀 부인 재산의 권리를 위임받은 증서를 제시하여 페이놀의 술책을 물리친다. 이안 도날드슨(Ian Donaldson)은 미라벨의 승리를 법률적인 승리라고 말한다. 미라벨은 그가 가진 어떤 특수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페이놀보다 더 많이 법률을 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46-7). 미라벨은 웨이트웰을 롤랜드 경으로 변장시키기 전에 우선 포이블과 결혼시킴으로써 법률에 대한 지혜를 드러낸다. 이 결혼은 웨이트웰이 롤랜드 경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로 레이디 위시포트를 농락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미라벨이 그들 결혼에 대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요구할 때, 법처리에 있어서 그 주도면밀함이 드러난다. 페이놀에게 아내의 평판에 대한 위협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의 법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 미라벨은 신뢰와 계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적인 능력을 실행함으로써 승리하지만 페이놀은 법적 무지와 무능력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미라벨의 비장의 무기이며 술책의 마지막 카드인 검은 상자(black box)에는 페이놀 부인이 결혼하기 직전 미라벨이 페이놀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녀의 재산 관리권을 위임받은 증서가 들어 있다. 그 증서 앞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 온갖 술책을 부리던 페이놀은 무력해진다.

> 페이놀: 좋아요. 이게 뭐죠? 제기랄!(읽는다) '과부인 아라벨라 랭귀시의 모든 재산을 에드워드 미라벨에게 믿고 맡기는 양도 증서'-젠장!
>
> 미라벨: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법이지요. 과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 증서가 당신이 부인과 결혼해서 얻은 것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
> 페이놀: 이 사악한 악마! 복수할 테다.

> Fainall: Very likely, sir. What's here? Damnation!(Reads) 'A deed of conveyance of the whole estate real of Arabella Languish, widow, in trust to Edward Mirabell.'—Confusion!
>
> Mirabell: Even so, sir;'tis the way of the world, sir—of the widows of the world. I suppose this deed may bear and elder date than what you have obtained from your lady.
>
> Fainall: Perfidious fiend! then thus I'll be revenged.—(5.1.590-7)

결국 선견지명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술책을 세웠던 미라벨이 승리한다. 페이놀과 미라벨 모두 세상 돌아가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1]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라벨은 앞으로 계속 이상적이고 탁월한 술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페이놀은 복수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속하고 악덕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술책을 세울 것으로 여겨진다. 페이놀과 마우드 부인은 이 극의 끝까지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미라벨의 승리로 재산과 명예를 지킨 인물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법』은 사회 내에서 표면적으로는 평판이 우상에 비유될 만큼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명예를 지키고 재산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사랑 없는 결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시 사회상이 이 작품에는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외면 중시 사회에서 술책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주춧돌이 되는 장치이다.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들의 온갖 술책 속에 이야기가 전개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술책의 목적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순수하게 연인과 결혼하기 위한 것, 방탕한 생활을 위해 표리부동한 행동을 일삼으며 돈을 추구하는 것, 자신과 맞

---

1) 이 극에서 “세상 돌아가는 법”은 세 번 언급된다. 첫 번째는 페이놀이 아내와 미라벨과의 과거 연인과계였으며 지금도 미라벨의 음모에 공모자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 언급한다(3.1.677). 두 번째는 페이놀과 마우드 부인의 부정이 폭로되자, 페이놀이 뻔뻔하게 “세상 돌아가는 법”일 뿐이라고 말한다(5.1.519-20). 마지막으로 미라벨이 페이놀 부인의 혼전 재산 양도증서로 페이놀의 권리주장을 무효화시키며 하는 말이다(5.1.606).

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한 인간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키려는 등의 술책이 있다. 등장인물들은 각각 자신의 능력 하에 술책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당대의 모습이며 콩그리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Ⅲ. 다양한 결혼의 극화

왕정복고 연극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처음으로 여성배우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여성배우의 등장으로 이전까지 변성기 전의 소년들이 맡았던 여성의 역할이 실제로 여성의 몫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여배우의 등장은 당대의 주된 관심거리였던 남녀관계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데이비드 허스트(David L Hirst)는 여배우의 등장이 영국 희곡에 있어서 결혼과 성을 통해 발생하는 간통과 이혼이라는 참신한 주제들을 강조해서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7-8). 허스트의 주장은 왕정복고 희극의 주요 모티브가 결혼과, 간통, 남녀 간의 사랑 문제임을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처럼 콩그리브의 희극의 움직임도 결혼으로 끝나는 것을 향해서 진행된다. 희극의 가장 큰 주제인 결혼의 중심에는 항상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이상적인 여자 주인공이 존재한다. 셰익스피어가 로잘린드(Rosalind), 포샤(Portia)와 같은 매력적인 희극 여주인공을 탄생시켰듯이, 콩그리브도 자신의 희극 세계 속에서 결혼의 움직임을 지배할 밀라망이라는 멋진 여성을 창조한다.

『세상 돌아가는 법』에서 결혼은 밀라망과 미라벨과 같은 위트가 넘치고 세련된 인물들의 목표이자 이 극의 결말이다. 하지만 이 극에서 펼쳐진 결혼의 과정은 행복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극에서 결혼은 지참금, 재산증서와 같이 돈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당대의 위선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2] 하인에서 주인, 남자에서 여자에

2) 당시 결혼을 할 때 여성이 가지고 올 지참금의 액수는 남성들이 신부감을 고르는데

이르기까지 결혼은 극 전체를 통해서 자유를 구속하고 위선을 가져오며, 교묘한 조종을 하게 만드는 제도로 묘사되고 있다. 이 극에서 묘사되고 있는 결혼은 행복과 연관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처음으로 언급된 결혼은 두 하인들 웨이트웰과 포이블의 결혼이다. 이 결혼은 미라벨이 자신이 밀라망과 결혼하기 위한 계략을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작해 낸 것이다. 미라벨은 포이블에게 "성공하면 계약이 효력을 볼 것이고, 농작물이 쌓이게 될 거야."(The lease shall be made good and the farm stocked, if we succeed)(3.1.601-603)라고 돈을 더 주기도 한다. 포이블은 미라벨의 술책을 진행하면서 위기에 처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 나갈 줄 아는 위트를 지니고 있다. 웨이트웰과 포이블은 2막에서 함께 등장할 때는 행복한 결혼을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막이 끝날 때 웨이트웰은 결혼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게 만들었다고 투덜댄다. 실제로 함께 등장하는 첫 부부는 페이놀 부부이지만 이들 역시 사랑이 아닌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결혼이다. 이렇게 이 극에서 결혼은 부부가 서로 공통으로 느끼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도구와 장해물로서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2막에서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남녀간의 밀담 속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또한 극의 행동이 진행됨에 따라 등장인물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갖는 냉소적인 생각들은 점점 심화된다. 미라벨이 밀라망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술책을 벌이고 레이디 위시포트가 결혼에 대해 절실한 욕구를 보이는 것은 결혼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희극 구성의 흐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페이놀은 이 극에서 결혼에 대한 가장 추악한 면모를 보인다. 페이놀 부부는 타인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경멸하고 증오한다. 페이놀의 결혼 묘사는 남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페이놀 부인이 바람나서 서방질한 것을 알고서 자신의 결혼이 끝난 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Sharma 19). 남성들은 지참금의 액수에 따라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 아닌,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 더욱 보편화되고 상류사회에 결혼의 본질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결혼관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부관계도 정상적일 수 없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인을 가지고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없이도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한 결혼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페이놀은 더 이상 부인의 행동에 대해 질투나 미련을 갖지 않고서 부인의 재산이 자신한테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한다(3.1.728-36). 그는 결혼에 대한 가장 흉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결혼을 고통과 잔혹함이 뒤범벅된 것으로 묘사한다. 페이놀은 극의 끝에 가서 아내를 아끼는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페이놀 부인 집안의 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포이블과 민싱의 고해로 마우드 부인과의 관계가 드러나자, 페이놀은 "내 아내였던 그대는 이보다는 현명할 테지! 내가 그대의 수치를 덮어두기 원한다면 재산을 나에게 줘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네 평판처럼 벌거벗겨질거야."(You thing that was a wife, shall smart for this! I will not leave thee wherewithal to hide thy shame; your body shall be naked as your reputation)(5.1.542-44)라고 독설을 퍼붓는다. 끝까지 돈에 집착하는 페이놀의 모습은 당대 보편적인 정략결혼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페이놀의 계획에 공범자이며 그와 내연 관계에 있는 마우드 부인 역시 결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결혼이라는 모독과 같은 의식을 행한다면 남편이 자신을 항상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믿게 해서 두려움과 질투로 마음 졸이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2.1.57-68). 페이놀과 마우드 부인의 결혼에 관한 독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위선적인 결혼관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페이놀과 마우드 부인이 냉소적인 결혼관을 보인다면, 레이디 위시포트는 최소한의 기준에만 맞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결혼하겠다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녀는 외모와 나이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진 듯이 걱정을 하며 끊임없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 레이디 위시포트는 미라벨이 공작한 또 다른 술책인 그의 가짜 삼촌인 롤랜드 경과의 결혼을 꿈꾼다. 그녀는 결혼할 기회에 대해 판에 박힌 걱정을 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허둥대면서 롤랜드 경을 기다린다. 웨이트웰이 롤랜드 경으로 분장하여 그녀에게 나타나 구혼을 하자,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안달하면서도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을 지키며 마음속의 욕정을 감춘다. 그녀는 끝까지 예절이란 이름을 강조하며 롤랜드 경의 청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5막에서 롤랜드 경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

둥할 레이디 위시포트를 생각하면 폭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웨이트웰은 나름대로의 위트를 발휘하면서 롤랜드 경으로 분장하여 맡은 바 역할을 멋지게 해내며, 위선덩어리인 레이디 위시포트의 허례허식을 기막히게 부추긴다. 그녀는 재산을 빌미로 표면적으로는 힘있는 자를 움직여서 계획을 실행해나가지만 자신이 조종하지 못하는 요인들로 인해 힘을 잃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콩그리브는 레이디 위시포트를 과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에 대한 압도적인 욕구를 보이는 여성 인물로 그림으로써 또 다른 결혼의 모습을 보여준다. 레이디 위시포트의 결혼에 대한 집착은 결혼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희극 결말의 흐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 짐작된다.

콩그리브는 다른 여성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어리석음과 결점을 능가하는 지적이며 도덕적인 매력이 풍부한 밀라망을 창조해 낸다. 그는 독립적이고 현명한 밀라망을 극의 중심에 놓고 자주성에 대한 그녀의 강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희극 여주인공들처럼 밀라망은 쾌활하고, 위트가 넘치며 결혼이라는 불가피한 결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자신감이 있는 여성이다. 미라벨과 페이놀은 그녀를 여성 비밀결사의 모임의 가장 비범한 일원으로 소개한다. 페이놀은 밀라망이 위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라벨 역시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을 극찬하면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한다(1.1.165-9). 밀라망은 1막에서 그녀의 부재로 인해서 그 존재가 두드러진다. 그녀는 남자들이 보낸 운문 편지로만 머리를 말 정도로 멋쟁이이며, 변덕이 심하고 위트가 넘치는 여성이다. 밀라망 역시 자신에 알맞은 가면을 쓰고서 가식과 허영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을 즐기며 그들에게 허세부리기를 좋아한다. 표면적으로 밀라망은 어리석은 가짜 위트꾼들 사이 속에서 어울리면서 자신을 무심한 바람둥이로 보이게 한다. 그녀는 무식한 남자는 혐오 대상(3.1.452)이라고 꾸짖으며 자신을 숭배하는 구애자들의 애정공세를 가볍게 물리친다. 그녀는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변덕과 우유부단함으로 위장하여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윌풀 경(Sir. Wilfull Witwoud)이 산책을 제안할 때(4.1.131-68)와 써클링의 시를 읊고 있을 때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4.1.114-6)은 그녀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유쾌한 장면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녀는 미라벨을 짝사랑하고 있

는 마우드 부인을 속마음을 간파할 정도로 예리한 면도 지니고 있고, 필요에 따라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우드 부인이 밀라망에게 미라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면서 추궁하자 밀라망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청함으로써 이 대결을 끝낸다.

> 그리고 나서 나 홀로 차지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죠.
> 내 연적의 눈에 모욕을 주면서:
> 만일 사랑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보는 그 때라네.
> 남들이 피흘리며 얻으려는 사랑이, 나를 위해 피흘림을.
>
> Then I alone the conquest prize
> When I insult a rival's eyes:
> If there's delight in love, 'tis when I see
> That heart which others bleed for, bleed for me. (3.1.415-8)

그녀는 이 노래로 3막에서 미라벨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 사이의 대결을 끝낸다. 밀라망은 마지막 가사에서 미라벨에 관해서는 자신의 승리가 분명함을 암시한다. 여기서 그녀가 마우드 부인의 악함이나, 페이놀 부인의 연약함이 아닌 세련된 위트를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겉멋만 부리는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박식함과 침착한 우아함을 지닌 흥미로운 존재로 왕정복고 시대에 가장 기억할만한 희극 속에 나타난다.

밀라망은 미라벨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 하에 결혼하기 위해 그를 차갑게 대하면서 진심을 숨기고 있다. 그녀는 마음껏 가면을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 "독립성 있는 결혼"(Bruce 144)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녀는 미라벨의 결혼의지에 맞서 결혼이 의지와 기쁨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며 (4.1.196-7)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다. 밀라망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미라벨에게 결혼 조건을 제시한다.

밀라망을 세련되고 기지가 넘치는 여성으로 만드는 장면은 4막에서 펼쳐지는 결혼 조건 제시 장면(proviso scene)이다. 밀라망과 미라벨은 결혼 생활 가

능성을 탐색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활기차고 세련된 위트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밀라망은 남편과 아내가 지나치게 허물없이 사용하는 위선적인 말을 절대로 참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4.1.215-8) 결혼한 사이가 아닌 것처럼 예의바르게 굴자고 주장한다. 그녀는 아내, 배우자, 귀여운 사람, 기쁨 보석, 사랑 애인과 같은 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페이놀 부인과 마우드 부인을 통해 결혼이란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환멸까지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미라벨은 그럴듯하다며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밀라망은 아내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 밀라망: 사소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당신의 의심스런 표정이나 찡그림 없이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대화 주제를 고르고 싶어요. 당신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당신과 친척이라는 이유로 바보 같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원할 때 저녁을 먹고,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쁠 땐 방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요. 내 옷장 속의 옷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 나의 다과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어서 누구도 나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곳에 들오기 전에 꼭 노크를 해야 해요.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참아내려면 위의 내용들이 규정화 되어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점차 아내라는 축소되는 지위에 적응할 수 있겠지요.

> Millamant: Trifles,— as liberty to pay and receive visits to and from whom I please; to write and receive letters, without interrogatories or wry faces on your part. To wear what I please; and choose conversation with regard only to my own taste; to have no obligation upon me to converse with wits that I don't like, because they are your acquaintance; or to be intimate with fools, because they may be your relations. Come

> to dinner when I please, dine in my dressing-room when I'm out of humor, without giving a reason. To have my closet inviolate; to be sole empress of my tea-table, which you must never presume to approach without first asking leave. And lastly, wherever I am, you shall always knock at the door before you come in. These articles subscribed, if I continue to endure you a little longer, I may by degrees dwindle into a wife. (4.1.232-44)

그녀는 언어적 탁월함을 발휘하면서 위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행위들을 침범당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결혼 안에서도 자유와 개인적인 공간을 간직하고 싶고 권한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 조건 제시를 통해 밀라망은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 계속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그녀는 경제적 목적에 따른 페이놀 부부의 정략결혼이 야기한 위선과 모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하고 자주성이 보장되는 결혼을 하려는 것이다. 또한 밀라망은 결혼이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자신도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강박적으로 더욱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수락될 경우에만 그녀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미라벨 역시 밀라망의 계약 조건에 맞서 "남편이라는 지위로 확대되지 않는"(4.1.253-4)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밀라망의 조건 제시에서 시작한 장면은 미라벨의 조건 제시를 통해 결혼 협상장면으로 발전한다. 협상 중간에 미라벨은 밀라망이 요구하는 자율성에 관한 항목들을 수긍하면서 금지조항 등을 열거한다. 그는 밤에 가면 쓰지 않기, 임신하면 몸을 쥐어짜는 옷 입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혼외정사 하지 않기 등의 규정을 따른다면 아주 관대하며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한다(4.1.271-307). 사실 그의 결

혼 조건은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악역을 해 온 여성의 행동에 대해 요약을 해 놓은 셈이다. 그는 여성이란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성실하지 못하며 거만해지고 싶은 욕구에 빠져 들기 쉬운 존재로 생각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낸다(Carlson 73). 그는 노골적으로 가면을 쓰고 극장에 가는 것과 "소위 궁정식이라고 불리는 상류층 여성"(the gentlewoman in What-d'ye call it)(4.1.279)과의 교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라벨이 밀라망에 대해 가면을 쓰고 '멋쟁이 남성'(fop)과 어울리도록 구슬리는 이름 모를 여성-'미끼구실을 할 여성'(decoy-duck)과의 교재를 인정하지 하겠다는 점은 그가 당시 극장을 여성들이 금지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avis 524). 그는 가면을 쓴 밀라망과 다른 여성이 함께 극장에서 지각없는 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에 휩싸인다. 여자 친구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미라벨은 오쟁이진 남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라벨이 성적인 측면에서 밀라망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자신은 그 통제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결혼 후에 밀라망이 정절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Pearson 56). 이처럼 미라벨의 결혼 조건은 밀라망이 추구하는 여성 독립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미라벨 역시 독립성이 있는 결혼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결혼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드러낸다. 밀라망의 모든 요구는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권리이고 미라벨의 요구 또한 밀라망의 가정에서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자유 보존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오직 밀라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다(Carlson 82). 이들이 결혼 후에 이루게 될 가정은 근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가부장적인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라망의 결혼 조건 제시 장면은 표면상으로는 위트가 넘치고 남녀평등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불평등이 내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밀라망은 그의 요구에 대해서 자제력을 잃은 과장된 표현으로 감탄사와 저주로써 대응하고 있다.

밀라망: 오, 지긋지긋한 조건 같으니라고!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같으니라고!
이 자들, 이 밉살스러운 남자들에게 축배를 들지요! 당신의 지긋지긋한 조건은 끔찍해요!

Millamant: Oh, horrid provisos! filthy strong waters!
I toast fellows, odious men! I hate your odious provisos. (4.1.308-309)

결정적인 순간에 밀라망은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 전에 보였던 자주성을 상실한다. 그녀는 미라벨의 힘에 못 이겨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앞에서 보여준 밀라망이 소중히 여기는 자주성을 더 이상 보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지긋지긋한 조건'이라며 결혼 계약 조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열망하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다. 이렇게 결혼 협상장면에 내재된 불평등은 마침내 밀라망이 거절하는 체 하다가 미라벨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밀라망이 언어를 잘 다루고 영민한 대화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권위가 얼마나 언어에만 제한되어 있는지를 반어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결혼 조건 교환 장면 이후에 밀라망의 역할은 전도된다. 미라벨의 요구에 밀라망은 항의하지만 미라벨은 "그러면 우리는 합의했소"(Then we're agreed)(4.1.310)라며 그녀를 조롱하듯 말한다. 그녀는 미라벨과의 계약에 승인하면서도 변덕을 부리며 기쁨과 증오의 양면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미라벨에게 키스받지도 감사받지도 않겠다고 하면서도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마침내는 입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종용한다(4.1.327-329). 밀라망의 마지막 변덕은 그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라벨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던 그녀는 "미라벨이 좋은 남편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 거야;— 왜냐하면 그를 열렬히 사랑하니까."(Well, if Mirabell should not make a good husband, I am a lost thing;— for I find I love him violently.)(4.1.348-50)하고 가면

을 벗어 던지고 진심을 드러낸다. 그녀는 미라벨의 침묵을 얻어내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의 마지막에 침묵하는 건 그녀의 몫이 된다. 그녀는 미라벨이 지시하는 역할을 순순히 따르는 쪽으로 바뀐다. 당당하게 협상을 제시하는 협상가의 입장에서 협상을 당하는 입장이 된 그녀는 주체이자 객체 즉 미라벨의 협상 대상이 되고 만다.

이처럼 『세상 돌아가는 법』은 극 초반 미라벨의 술책의 수단이 된 웨이트웰과 포이블의 결혼에서 페이놀 부부의 위선적이고 황량한 결혼,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레이디 위시포트의 결혼, 서로의 끌림과 반감을 위트있게 표현하며 결혼 협상을 하는 미라벨과 밀라망의 결혼까지 다양한 결혼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극의 마지막 움직임은 미라벨과 밀라망의 이상적인 결혼으로 향하지만 젊은 연인의 결혼이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기발랄하게 결혼 조건을 제시하며 미라벨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밀라망은 마지막에 목소리를 잃는다. 오히려 침묵하겠다던 미라벨이 결혼에 대한 논평을 하며 이 극을 결말짓는다. 그는 앞으로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실패로 만들 수도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고를 한다. 결혼에서 사기 행위는 같은 식으로 무수히 보복받을 것이라며 강조한다(5.1.677-680). 그는 당시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결혼에 대해 비판을 하며 밀라망과의 결혼을 쟁취한 이 극의 유일한 승리자처럼 보인다. 협상 장면을 통해 미라벨과 밀라망은 다른 연인들에 비해 돈이 목적인 결혼을 지양하고 이해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결혼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콩그리브는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성이 가부장으로서의 지배력을 획득하여 독립을 꿈꾸는 여성을 더 순종하게 만드는 또 다른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Ⅳ. 결론

『세상 돌아가는 법』은 외면만을 중시하고 표리부동한 사회 속에서 온갖 술책이 난무하는 세계를 절제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재현한 사

회는 겉으로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물들의 추악한 실상이 엉켜있는 세계이다. 극 속에서 등장인물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술책을 부린다. 사랑하는 연인과 돈을 얻기 위한 술책, 단지 방탕한 생활을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한 술책, 타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 등이 치밀하고 재치있게 또는 악랄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술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즉 표리부동하고 악랄한 페이놀은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이고 세려된 위트를 보이며 현명하면서 때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미라벨은 성공한다. 등장인물들은 술책이 실패했다하더라도 세상을 부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술책을 모색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콩그리브는 프롤로그에서 "잘 돌아가는 세상"(reformed a town)(prologue 31)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함있는 등장인물들을 이용해 당대의 위선적인 타락상을 폭로한다. 또한 훈계는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작가는 관객(독자)을 교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prologue 34). 콩그리브는 자신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관객(독자) 스스로 잘못된 사회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류 귀족세력이 누리던 혼탁한 사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미라벨과 밀라망의 결혼으로 위선적인 사회 모습을 덮어버린다. 이 극에서 그려진 다양한 결혼의 모습 중 가장 이상적인 결혼처럼 보이는 이들의 결혼도 장기적인 행복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젊은 연인의 화려한 위트 대결을 보인 결혼 조건 장면은 둘의 관계가 남녀평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강압의 상태에서 여성이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을 통해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과 달리 성적 계약(sexual contract)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종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캐롤 피트만(Carole Peteman)의 주장처럼 여성은 결혼 계약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2). 결혼 계약은 가부장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수단인 것이다. 미라벨이 지배하는 결혼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은 여성들의 독립이 아닌 지위와 지배권 상실을 의미한다. 페이놀 부부와 레이디 위트우드의 결혼을 통해 드러난 콩그리브

의 냉소적인 결혼관은 미라벨과 밀라망의 결혼을 통해 더욱 황량하고 음울하게 제시된다. 특히 이 극의 열린 결말은 결혼의 굴레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콩그리브는 이미 희극에서 결혼이란 위선과 불공평이라는 전제 하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당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타락한 풍속을 무대 위에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신랄한 풍자정신을 발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인 용 문 헌

Braverman, Richard. "Critical Relations and *The Way of the World*." *ELH*. 52.1. (1985): 133-58.

Bruce, Donald. *Topics of Restoration Comedy.* London: Victor Gollancz, 1974.

Carlson, Susan. *Women and Comedy*.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1.

Congreve, William. *"The Way of the World."* In *British Dramatist from Dryden to Sheridan*. Ed. George H. Nettleton et al. Urbana: Southerm Illinois UP, 1939.

Davis, Vivian. "Dramatizing the Sexual Contract: Congreve and Centlivre." *SEL*. 51.3. Summer 2011. 519-43.

Dobrée, Bonamy. *Restoration Comedy: 1660-1720*. London: Oxford UP, 1924.

Donaldson, Ian. T*he World Upside-Down: Comedy from Jason to Fielding*. London: Oxford UP, 1970.

Fujimura, Thomas H. *The Restoration Comedy of Wit.* Connecticut: Greenwood P, 1978.

Hirst, David L. *Comedy of Manners.* London: Metheun, 1979.

Love, Harold. *Congreve*. Oxford: Blackwell, 1974.

Palmer, John. *The Comedy of Manners.* London: Bell and Sons, 1913.

Pearson, Jacqueline. *The Prostituted Muse*. New York: Harvester & Wheatsheaf, 1988.

Perry, Henry Ten Eyck. *The Comic Spirit in Restoration Drama: Studies in the Comedy of Etherege, Wycherley, Congreve, Vanbrugh, and Farquhar.* New York: Russell, 1962.

Peteman, Carole.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P, 1988.

Sharma, Ram Chandra. *Themes and Conventions in the Comedy of Manners*. New York: Asia Publishing, 1965.

Abstract

Hypocritical Society and Marriage in *The Way of the World*

Oh, Sujin

The Restoration Comedy, or the Comedy of Manners depicts the depravity and the pleasure-seeking spirit of life that characterized the most dissolute portion of fashionable society. It reveals the deception, hypocrisy, indifference and cruelty that abound in the intrigues of such a worl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ypocritical society and marriage in William Congreve's *The Way of the World* considered to be the finest example of Restoration Comedy. Most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 are entangled in a variety of schemes related to their money and reputation. *The way of the World* is a satire debunking the hypocrisy, intrigues, and lust in the upper class. Congreve aimed at satirizing the hypocritical life of the aristocratic class and disclosing fashionable follies with the use of sparkling wit and ridiculous farce. Furthermore, the jealousy, inconstancy, and cuckoldry which he represented on the stage are portrayed as the offshoots of unhappy sex relationship(wrong marriage) and greed, remaining subsidiary to the main theme of true love and marriage. In other words, in the play, the central theme is the delicate handling of the love game played by enlightened Mirabell and Millamant, and preserving the typical comic ending toward ideal marriage. The famous proviso scene shows Mirabell and Millamant trying to achieve a degree of understanding and equality by stating what they really want from marriage. Even though conjugal rights are ostensibly established by the marriage negotiation, the

contract rather continues to reveal deep, gender-based inequalities.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contract is not opposed to patriarchy and constitutes modern patriarchy. Throughout the play, Congreve apparently describes marriage as an institution which restricts wives' freedom, causes hypocrisy and discloses gloomy prospect of marriage through the final vision of marriage that Mirabell dominates. Consequently, Congreve just represents the very life of the upper class as it is and does not offer any hope to reform the society and inequal marriage.

Key words: the Restoration, Restoration Comedy, Congreve, hypocrisy, marriage
왕정복고, 왕정복고 희극, 콩그리브, 위선, 결혼

논문접수일: 2012. 10. 28
심사완료일: 2012. 11. 23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오수진
소속: 서원대학교
주소: (361-7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옛 청주사범대학) 미래창조관 1004호
이메일: sujin79@hotmail.com